

한전KDN, 공공기관 최초 ‘중대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IT 서비스 기업 다운플레이스와 협업...안전·보건 이행 내역 관리 등
공공·민간 분야 어디에나 활용 가능...국가 안전 표준 모델로 주목

한전KDN이 나주 빛가람동 소재 지역 IT 기업과 손잡고 공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한전KDN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대 사건·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한전KDN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한전KDN의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와 지역 소재 IT 서비스 기업인 다운플레이스(주)가 협업한 결과다. 한전KDN이 용역 발주 및 전문 인력을 지원했고, 다운플레이스(주)는 중대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준공했다. 시스템은 공공기관이 구축한 첫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이행 내역을 관리한다. 법적 안전·보건 업무 전 주기를 플랫폼에서 표준화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 대응이 일반적이었던 기존 체계를 현장 모바일·

IoT(사물인터넷) 연동을 통해 사전 차단 중심의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이다. 한전KDN은 그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분산된 시스템으로 처리해왔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한 곳에서 안전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현장 보고 이후 본사의 승인을 받고 후속 조치에 나섰던 절차적 시간을 줄이고, 동시에 본사와 현장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 과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한전KDN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시스템 구축에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수사팀장 출신인 전문가가 설계 등에 직접 참여했으며, 현장 규제·점검 기준과 디지털 작업 절차 등을 정립했다. 해당 시스템은 전담 안전 인력을 상시 배치하기 어려운 중견·중소기업도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템플릿과 자동화 점검 기능을 제공하며,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국가 안전 표준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시스템 주요 기능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내역 관리, 안전점검 이력 관리, 위험성 평가, 교육 이력 관리 등이 있다. 시스템 도입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안전 점검 이력과 안전 교육 현황,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안전 사각 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번 시스템을 준공한 지역 소재 IT업체인 다운플레이스(주)는 한전KDN을 시작으로 지자체·공기업·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산업별로 템플릿을 배포하고, 중대재해통합관리시스템 확산에 나서고 있다. 다운플레이스는 특히 향후 시스템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부터 웨어러블·스마트 기기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되면서 많은 기관들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중대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임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제로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에너지·AI 융복합 신기술 광주로 총집결

한전, 오늘 DJ센터 개막...국내외 166곳 참여



한국전력공사(한전)는 5~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규모 전력·에너지 산업 박람회인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BIXPO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아 ‘에너지로 연결하다’를 주제로 기술과 산업, 지역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융복합 에너지 엑스포로 진행된다. 5일 개막식에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기조 연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와 국내외 전력사 CEO, 주한 대사, 대학총장 등 7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Un-packed’ 행사에서는 에너지와 융복합 분야 신기술을 최초로 공개한다. 리벨리온, 민센 등 4개 기업이 참여하며, 산업안전 관련 첨단기술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올해 BIXPO에는 국내외 166개 기업과 기관, 지자체, 대학 등이 신기술 전시에 참가한다. 전시는 KEPCO관, 지역특화산업관, 글로벌 리더관, 딥테크 스타트업 특별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대기업은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포스코, LS그룹 등이 참여하며, 중소기업 부스와 함께 에너지산업의 밸류체인과 인공지능(AI)·로봇·에

너지 융복합 기술을 선보인다. 국내외 41개 전문 컨퍼런스도 개최된다. 6일에는 글로벌 에너지 전문 컨퍼런스인 ‘에너지 리더스 서밋’, ‘KEPCO R&D 컨퍼런스’ 등을 열고 전력망 혁신 및 탄소중립 조기달성을 위한 에너지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발명기술혁신대전’에서는 한전과 공공기관 직원, 대학생이 발명한 78개 우수 발명품이 전시된다. 기업 최초로 개최되는 ‘TED x KEPCO’에서는 6개 분야 전문가 강연을 통해 기후위기, 인간관계, 각종 불균형 등 사회 현안에 관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밖에 7개국 16개사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도 열려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공기업과 지역 50여개 유망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와 구인기업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해 BIXPO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신기술과 지역·사람을 연결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한 성장모형을 제시해 ‘K-에너지 허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K-푸드 가능성 확인...aT, 기술사업화 교육 성과공유 대회 성료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성과공유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T 제공>

버섯균사체 활용 포장재·스파클링 티 대상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성과공유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aT는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벤처 연구팀을 위해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창업, 식품외식·푸드테크 산업 진출을 지

원한다. 이번 대회는 aT의 기술사업화 교육에 참여한 연구팀들이 각자의 사업화 모델 개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참가자 간 기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8개 교육기관에서 선발된 16개팀이 참가해, 기술화와 사업화 두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그린그로우팀(한국농수산

대)의 ‘버섯균사체를 활용한 포장재 양산’이 기술화 분야 대상을, 리프랩팀(한양대)의 ‘스파클링 티’가 사업화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대회는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이 식품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PS, 한국품질만족지수 14년 연속 1위

발전설비 정비서비스 부문

한전KPS는 “올해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발전설비 정비서비스 부문에서 14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국품질만족지수는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과 해당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 우수성, 만족도 등을 조사해 품질만족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한국표준협회 주관한다. 한전KPS는 발전설비 정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고객들을 만족시키며, 국내 최고 발전설비 공기업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 한전KPS는 국내외 시장에서 연달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는 29년 연속 대통령상을, ‘국제품질보급위원회’에서는 ‘Gold Award’를 수상해 품질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외에서는 지난 6월 체결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통해 시운전 정비와 가동 전 검사 등을 전담하게 됐고, 루마니아 체르노보더 설비개선 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기도



한전KPS 박인수 품질경영처장(왼쪽)이 인증패를 받고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KPS 제공>

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고객의 신뢰와 임직원의 헌신이 있어 한전KPS가 국내 최고 발전설비 공기업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글로벌 사업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